

사회

2010 희망일기

⑥ 광주과학기술원 김용훈 교수

# 나로호 5월 2차 발사 '우주의 꿈'을 현실로

“오는 5월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가는 우리의 꿈 ‘드림’이 이번에는 임무 달성에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타고 우주로 날아갈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의 핵심 장비 ‘드림’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용훈 교수(기전 공학과)가 개발했다. 김 교수는 7일 “꿈이 ‘현실’이 돼 광주와 호남,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소망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드림’은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탑재체인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DREAM : Dual-channel Radiometers for Earth and Atmosphere Monitoring·마이크로파 복사기를 이용한 지구 표면 및 대기에 대한 관측 장치)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그 자체가 ‘꿈’이다. 이 관측장치는 과학기술위성 2호의 주임무인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측정하게 된다.

STSAT-2 핵심장비 ‘드림’ 개발  
기후변화의 과학적 데이터 측정  
성공수행위해 실천같이 연습 중

지구의 대기와 해양, 지표 등 복사에너지를 정밀하게 관측해 구름의 수증기량과 대기의 물 함유량, 강수량 등 한반도 및 전 지구의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관측 자료는 KAIST, NASA 등 전문가 그룹에 제공돼 지구 온난화와 기후 및 환경 변화 분석에 필수적인 물과 에너지의 순환 연구에 활용된다.

특히 김 교수가 개발한 ‘드림’은 원격 지구 관측이 가능한 마이크로파 센서 시스템으로 기존의 광학 및 적외선 센서와는 달리 날씨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천후 측정이 가능하다. 또 밤에도 관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김 교수는 우주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드림’을 점검하고 있다. 드림이 우주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수신해 교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실천과 같이 연습 중이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세계 유수 대학과 연구소에 보내져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 분석·연구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을 파악해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김용훈 교수는 “지난해 나로호의 임무 실패로 과학



7일 김용훈 교수가 광주과학기술원 실험실에서 오는 5월 나로호에 실려 우주임무를 수행할 ‘드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술위성 2호가 우주에서 불타 사라졌지만 올해는 그 쌍둥이 동생이 재도전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드림’은 우주에서 2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며 기후 변화 등을 정밀하게 관측해 지구 온난화 해결의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100kg급의 소형위성으로 2년 동안 지구 저궤도(300km x 1500km)를 돌며 지구 복사에너지 측정, 구름 속의 물 함유량 측정 등 지구 기후 변화와 위성의 정밀궤도를 측정(레이저 반사경)하게 된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7일 오전 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 앞에서 등록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등록금 고지서에 ‘동결’을 상징하는 못을 박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학 등록금 동결 목소리 거세다

조선대·경북대·이화여대 등 속속 동결 선언

전남대 총학 등 결단 요구... 전남대 “고심중”

대학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조선대에 이어 조선이공대학, 동강대학, 고구려대학 등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7일 오전 학내 제1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전국의 일부 대학들이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으며, 국립대인 경북대도 동참했다”면서 “전남대 대학본부도 즉각 등록금 동결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등록금이 많기로 유명했던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은 물론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며 “대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로 인한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고려해 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대학의 예산을 편성하고 등록금을 책정하는 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5차까지 진행했지만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지역 중심대학으로서 정부나 다른 대학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긴축 예산 편성 방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면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 자연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프라임그룹 회장 가족  
증여세 28억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장흥출신 프라임그룹 백종현 회장의 부인 임모 씨와 두 자녀가 증여세 28억4천여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의 근거가 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는 등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 무효이므로 세금 부과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세무서는 주식 지가 배정으로 임씨 등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시행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연혜수

## 교통사고로 사라진 ‘효녀의 꿈’

장흥서 팔순 아버지 사망  
5년동안 병간호 딸 ‘눈물’  
“제주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의 병이 호전돼 다음달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5년여간 딸의 극진한 병간호를 받아온 80대 노인이 암치료를 위해 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7일 오후 1시20분께 장흥군 장평면 용탄리 한 도로에서 운모(여·37)씨가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가 도로 옆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씨의 친정 아버지(80)

가 숨졌으며, 윤씨와 윤씨의 딸 2명도 중경상을 입고 장흥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윤씨는 아버지의 암 치료를 위해 가족과 함께 화순으로 이동 중이었다. 윤씨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 지난해 2004년 5월 폐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밤낮없이 병간호를 해왔다. 하지만 이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잃게 되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윤씨는 “아버지가 2004년 수술 후 상태가 점점 좋아져 다음달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었다”며 “모두 내 책임인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충무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나원침 (7999) 김장동



‘한상을 비판’ 前 세무서직원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7일 한상을 전 국제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 명예훼손)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제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제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란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연쇄방화 50대女 “방화충동 못이거”

○방화(放火)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빈 집과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다니던 50대 여성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 K(여·56)씨는 지난해 2008년 10월 1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빈 건물에 불을 넣어 불을 내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빈 집과 차량에 불을 질러 1천 325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는 것.

○K씨는 경찰에서 “뚜렷한 이유는 없다. 방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Naro-2' satellite mission,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satellite and text describing the mission and the 'Dream' payload.